빈 심포니 지휘 장한나 무대 만난다

광주예술의전당 재개관 무대
11일 대극장…브루스 리우 협연

빈 심포니 홈페이지 공식 사진(c)Stefan Olah

장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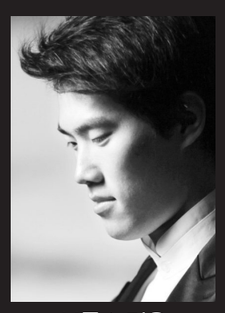
광주문예회관이 광주예술의전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재개관 기념 특별 기획음악회를 연다.

오는 11일 오후 5시 대극장에서 재개관 기념으로 무대에 올리는 '빈 심포니 & 장한나 내한 공연'이 그것. 장애를 극복한 예술가의 외침이 담긴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과 피아노 협주곡 3번은 초여름 예술의전당을 찾은 관객에게 청량감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빈 심포니는 지난해 한국·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을 맞아 브람스와 베토벤의 음악으로 한국 클래식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오케스트라다. 특히 올해는 지휘자 장한나·피아니스트 브루스 리우와 함께 관객들을 맞는다.

무엇보다 이번 무대는 광주문예회관이 광주예술의전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는 특별 음악회로 기대를 모은다. 지난 91년 개관한 문예회관은 공연장, 객석이나 설비 등이 낡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동안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온 만큼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연관람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연에서 광주시민은 20% 예매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900년에 '빈 음악협회 관현악단'으로부터 출발한 빈 심포니는 선구자 정신으로 새로운 음악을 시도해왔다. 그러한 정신은 현재 빈의 문화대사이자 빈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브루스 리우

특히 브루노 발터를 비롯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볼프강 자발리쉬 같은 지휘 거장들은 빈 심포니를 오스트리아 정상의 오케스트라 반열에 올려놓았다. 또한 빈 특유의 사운드를 이상적이고 매력적으로 표현해내는 오케스트라로 정평이 나있다.

내한공연에 함께하는 지휘자 장한나는 2017년부터 노르웨이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겸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2022/2023시즌 독일 함부르크 심포니 수석 객원 지휘자로 새롭게 임명됐다. 11세 때 파리에서 열린 제5회 로스트로포비치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하며 일찍이 음악계 주목을 받았으며 2007년 정식 지휘자로 데뷔했다. 본격적으로 지휘 공부를 시작한 계기였던 베토벤의 프로그램을 통해 빈 심포니와의 완벽한 호흡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빈 심포니 내한공연에서 호흡을 맞추는 브루스 리우는 제18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2021년)에서 6년만의 침묵을 깨고 배출된 우승자다. 잘 다듬어진 테크닉과 깊이 있는 곡 해석 능력, 이를 표현해내는 정교한 연주로 정평이 나 있다.

윤영문 전당장은 "2023년 예술의 전당 재개관을 기념해 세계 최고의 공연을 준비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빈 심포니'의 내한 공연은 광주예술의전당과 더블유씨엔코리아(주)의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관람료는 R 28만원, S 23만원, A 17만원, B 11만원, C 4만원. 상세 정보와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및 티켓링크(1588-7890)에서 가능하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익스트림 페스티벌'은 스며드는 영화"

배우 김재화, 지역축제 소재 '웃픈' 연기 "일·육아 경험 도움"

"'익스트림 페스티벌'은 한마디로 스며드는 영화 같아요. 먼 세상 이야기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내 이야기일 수 있다는 공감을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익스트림 페스티벌'의 주연 배우 김재화<사진>는 이 영화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김홍기 감독이 연출한 '망진군'이라는 가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축제를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로, 7일 개봉한다.

코미디라고는 하지만, 마냥 웃기기보다는 '웃픈'(웃기면서 슬픈) 느낌을 준다. 지역 축제가 사유물이라도 되는 듯 축제 연극에 시시콜콜 간섭하는 군수, 이에 항거하다가도 결국 타협하는 배우들, 지역 축제에서 인턴 일자리라도 잡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취업 준비생 등의 모습이 그렇다. 우리 사회의 '을'들이 아등바등 살아가는 현실을 보는 것 같다.

김재화는 "제 출연작 '롤러코스터'에 MZ 세대가 많이 공감해줬다"며 "'익스트림 페스티벌'도 언제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영화로 남아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롤러코스터'(2013)는 배우 하정우의 감독 데뷔작으로, 한류 스타가 일본에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코미디 영화다.

'익스트림 페스티벌'에서 김재화는 망진군 축제가 엉망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축제 대행사 대표 '혜수' 역을 맡았다.

축제를 보러 왔다가 실망한 사람들이 떠나려고 하자 혜수는 어떻게든 이들을 잡아두려는 조급한 마음에 재밌는 걸 보여주겠다며 닭 울음소리를 낸다. 이 또한 '웃픈' 장면이다.

김재화는 "닭 울음소리는 원래 제 개인기인데 감독님이 '그걸 한번 넣어보자'고 해서 했다. 그런데 (시사회 때 보니) 관객들은 숙연한 분위기 같았다"며 웃었다.

그는 "혜수는 너무 짊어질 게 많은 사람"이라며 배우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겪은 숱한 현실 속 어려움이 혜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털어놨다.

"돌이켜보면 배우 활동은 언제나 즐겁기만 했죠. 그런데 엄마가 된 사람이 배우 활동을 하는 건 끊임없이 투쟁해야 하는 일종의 '운동'이었어요. 항상 뭔가 쟁취해야 하고, 설득해야 하고…."

'익스트림 페스티벌'에서 혜수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대행사 이사 '상민' 역의 조민재는 김재화와 호흡이 잘 맞는 배우다.

두 사람은 김홍기 감독의 단편 영화 '중성화'(2019)에서도 호흡을 맞췄고 옴니버스 영화 '창간호'(2019) 속 단편 '이혼합시다'에서도 부부로 등장했다. 김 감독은 이 영화의 각본을 썼다.

김재화는 "감독님이 쓴 시나리오는 재밌다"며 "시나리오의 힘을 느껴 이번에도 같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톰 크루즈 5년만에 돌아온다…'미션 임파서블 7' 7월 12일 개봉

톰 크루즈 주연의 할리우드 액션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원'<사진>이 다음 달 12일 개봉한다고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가 1일 밝혔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7번째 편으로, 전편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 이후 5년 만에 나오는 속편이다.

이 시리즈의 5·6편을 연출한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이 다시 한번 메가폰을 잡아 인류를 위협하는 무기가 악당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에단 헌트(톰 크루즈 분)의 이야기를 그렸다.

예순이 넘은 톰 크루즈가 이번 편에서도 대역 없이 직접 모든 액션 연기를 소화했다.

최근 나온 예고편에서는 그가 오토바이와 함께 절벽에서 떨어지고 기차 위에서 상대와 맨주먹으로 싸우는 장면 등 고강도 액션이 공개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차은우, 스릴러 도전…드라마 '원더풀월드'로 복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사진>가 스릴러 드라마 '원더풀월드'(가제)로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제작사 삼화네트웍스는 새 드라마 '원더풀월드'에 차은우를 권선율 역으로 캐스팅했다고 1일 밝혔다.

'원더풀월드'는 억울하게 어린 아들을 잃은 주인공 은수현(김남주)이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가해자에게 직접 복수하는 내용을 다룬다.

차은우는 의대를 자퇴하고 거친 삶을 선택한 권선율을 연기한다. 상실의 슬픔 속에서 겨우 살아가는 은수현을 만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그녀의 삶 깊숙이 스며드는 인물이다.

드라마 '트레이서', '보이스 시즌2'의 이승영 PD가 연출한다. 내년 상반기 방송을 목표로 제작할 예정이다. 방송사나 방영 플랫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제작진은 "선한 얼굴 뒤 속내를 알 수 없는 분위기를 지닌 권선율 캐릭터를 통해 차은우의 색다르고 거친 매력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대 연 건 설
광주 동구 제봉로190번길 7-1
건설업·설비·토목
☎ 062)236-1510, 010-2630-4820

(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안마의자, 식품화장품, 마시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

(주)대신수산유통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홍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성수동꿀꽈배기 나주영산포점
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꿀꽈배기2개 1000원, 옛날핫도그1개 1000원
치즈핫도그1개 1500원. 찹쌀도너스2개 1000원
팥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

면 쟁 이
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급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밀,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쓰리에이치 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온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 스 제 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굴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갈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엣지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78번길 13, 검찰청담벼락밑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 대 화 랑
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천변우로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 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홍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등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올겐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